

「마음 열고 | 찬양과 나눔」

- 빈 들에 마른 풀같이(찬송 183장, 구 172장)
-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.

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. 각 사람의 생김새, 성격, 취미, 비전, 능력이 다르지만, 모든 성도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. 성도 각 개인이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한다면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「마음 다해 | 말씀과 나눔」

1. 사도는 성도가 성령을 받은 증거를 알려 줍니다(1-3절).

- 1) 하나님을 알기 전에 고린도 성도는 무엇에 끌려다녔습니까?(2절)
- 2) 성령을 받은 사람이 결코 하지 않는 말과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?(3절)

나눔 1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고백과 달라진 삶입니다.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은혜의 순간과 그 후로 달라진 나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나눠 봅시다.

2. 각 성도가 받은 은사는 다양하지만,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(4-11절).

- 1) 각 성도의 은사, 직분, 사역은 여러이지만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?(4-6절)
- 2)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?(8-10절)

3)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?(7, 11절)

나눔 2 은사는 누가 더 우월한지 가늠하는 도구가 아니라,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.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 다른 은사를 받은 이들과 협력하여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이야기해 봅시다.

나눔 3 은사는 '개인의 만족'이 아니라 '공동체의 유익'을 위해 존재합니다. 내가 속한 소그룹이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서로 나눠 봅시다.

「 마음 모아 | 함께 기도 」

삶 _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.

공동체 _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동역하게 하소서.

*본 소그룹 나눔지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그룹 큐티 나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찬송 183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

1. 빈 들에 마른 풀 같 이 시 들은 나의 영 혼 주 님이 약속한 성 령
2. 반 가운 빛 소리 들 러 산 천이 춤 을 추 네 봄 비로 내 리는 성 령
3. 철 따 라 우 로 를 내 려 초 목이 무 성 하 니 갈 급한 내 심 령 위 에
4. 참 되 신 사 랑의 언 약 어 기 수 있 사 오 락 오 늘에 흠 족 한 은 혜

후렴

간 절 히 기 다 리 네
내 게 도 주 읊 소 서 가 물 어 메 마 른 땅 에 단 비 를 내 리 시 듯
성 령 을 부 으 소 서
주 실 줄 믿 습 니 다

성 령 의 단 비 를 부 어 새 생 명 주 읊 소 서 아 멘